

전 세계 1만 1천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루는 우리 교회는 각종 세미나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공홀이 풍성히 임하면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며 마음 안에 선한 열매들을 맺어 이 땅과 천국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된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권능을 통해 송아지의 백내장을 깨끗이 치료받은 태국 나라웃 탄나차이 자매 간증.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을 받은 일본 나카가와 메구미 성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십견을 신속히 치료받은 강태오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55호 2018년 9월 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펼쳐지는 아프리카 선교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3개 도시에서 각종 세미나 열려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콩고민주공화국 유비라, 부까부, 고마 도시에서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경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사진 1)를 감사로 세미나가 열렸다. 첫 일정은 ‘교회 지도자 세미나’로 17일부터 이틀간 유비라시 소재 엘사다이교회에서 있었다(사진 4). 정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영적인 사랑’과 ‘믿음의 분량’에 대해 증거하였으며, 큰 은혜를 받은 담임 알렌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기도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8월 19일, 주일 오전에는 엘사다이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하였으며 오후에는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였다(사진 8). 유비라 시내 중심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정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영적인 사랑에 관해

말씀을 전했다, 이를 통해 10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준 결과,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어 간증이 이어졌다. 그 가운데 무안당구 시비차보 성도는 목뼈가 어긋나 3개월간 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았는데 기도 받은 뒤 치료되었으며, 라파엘 까뎬보 성도는 5년간 귀가 들리지 않고 다리는 불구였으나 귀가 열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8월 21일과 23일에는 부까부시 팡뜨대시그네이션 교회와 고마시 세팩교회에서 각각 MIS(만민국제신학교) 세미나가 진행되었다(사진 2-3, 5-7). 총회장 및 목회자로 구성된 MIS 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목사는 ‘영적인 사랑’과 ‘믿음의 분량’에 관해 강의하였다.

슈프루 까미에메 목사는 “성경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올바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직 경찰 간부였으나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믿음의 분량』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뒤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 MIS 세미나는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 ‘십자가의 도’를 비롯하여 ‘믿음의 분량’, ‘영혼육’ 등을 중심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외에도 케냐 주요 도시들과 우간다 2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꿈을 복돋아 주는 ‘드림스쿨’ 개강

지난 9월 3일, 학생주일학교 주최 ‘드림스쿨’이 개강하였다. 학생들이 학업 성적 향상은 물론 주관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배려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드림스쿨은 교회 성도들의 재능기부로 강사진이 이뤄져 운영되고 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 강의는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가 있으며, 수능을 대비한 수능영어, 수능수학, 수능한국사, 내신을 위한 논술 초·중급, 중1수학, 중2수학, 중3수학, 고등수학, 초급영어(구문독해+문법), 고등영어, 개념한국사, 그리고 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강의를 진행되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드림스쿨은 평일 저녁 성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16일까지 11주간 동안 진행된다.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회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무국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기독교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미국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한 피오렐로 라 과디아가 뉴욕시 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 붙잡힌 노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노인은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을 위해 빵에 손을 댔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들은 피오렐로 라 과디아 판사는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친 행동은 잘못이므로 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방치한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제가 10달러를 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중절모를 재판부 서기에게 내주며 “이곳에 계신 분들도 저처럼 벌금을 내고 싶으시면 여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모자를 돌리게 했지요. 노인은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도 47달러를 받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 '공홀'과 '선한 열매'와의 관계

'공홀'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마음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의 바탕 위에서 상대의 입장과 마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 지쳐 있는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공홀을 베풀었을 때 얻어지는 모든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므로 공홀과 선한 열매는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공홀 자체이기에 모든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마음도 공홀 자체이기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심령이 죄에 물들어 버린 사람이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도 끝까지 잡아 주셨고(마 12:20), 세리나 창기와 같이 멸시받던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베풀며 선한 일만 행하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조차 외면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홀을 통해 맺으신 선한 열매'입니다.

2. 생명을 살리는 공홀의 지혜

공홀은 단지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용서도 하고, 징계도 하며, 때를 좇아 구제도 합니다.

1)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용서의 공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공홀히 여기고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홀히 여겨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할 때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핍박받는 것조차 자기 탓으로 돌리며 남편을 위해 사랑의 기도가 나오지요. 이러한 공홀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요.

믿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옳고 당연한 말이라 해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을 하면 서로 변론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질 뿐이지요. 상대가 틀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할 때라야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꾼인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속이는 사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라도 상대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면 공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도 변화되고 싶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힘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 성장하면서 마음에 비진리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선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약합니다. 머리로는 선을 행해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답답하지요. 이렇게 상대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면 불평하고 심술을 부리는 사람도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상대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거나 불편함을 겪어도 인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 8:00 PM |
|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일예배 [아동부] | 3:00 PM |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한 정·간독서 우송료만 정·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원본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성)

할 수 없는 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했음에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교회를 훼방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그들의 허물을 성도들에게 알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면이나 책망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참고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 해도 지난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무조건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보다 책망하는 것이 상대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망 받지 않고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징계의 공휼

용서와 징계는 상반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휼에 속한 징계는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8절에 "... 내 아들이 주의 징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할 때 징계도 하시지만 죄의 담이 많이 쌓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징계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피하고자 자기 잘못을 덮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혹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 때문에 낙심해 버리지요. 만일 낮아진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즉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허물을 알게 되어 권면이나 책망을 해야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의 권면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내 의와 틀 속에서 상대를 찌르는 것일 수도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내 뜻대로 주관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휼이 없이 권면할 때에는 상대가 듣지 않습니다. 이때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강한 말로 상대를 찌르며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지요.

이런 책망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 해도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깨우쳐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고 힘이 빠지게 만들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 해보려 노력하다가도 낙심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권면하거나 징계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는 공휼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해야 하지요.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상대의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염려하고 공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책망할 때에도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먼저 잘한 일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을 듣고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고 이에 대해 엄한 경고와 책망을 하셨지요. 그런 뒤 또 다른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계 2:2-6). 책망으로 인해 상대가 힘을 잃지 않도록 칭찬거리를 남겨두었다가 다시 한 번 격려하

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의 공휼

공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푹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한 대로 참된 공휼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를 돕습니다.

먼저,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공휼히 여겨야 합니다. 핍박을 받거나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휼을 베풀며 돌아보아야 하지요. 이렇게 진실함으로 공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지요(눅 6:38).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옴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나옵니다. 당시 핍박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다비다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베풀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불쌍한 과부들에게 베풀었지요. 이러한 다비다가 병으로 죽게 되자 평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녀를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옴바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와달라고 간청하지요. 이윽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준 옷들을 보여 줍니다. 결국 그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다비다는 베드로의 기도도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편,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대상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으니 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을 구제해야 하지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 술이나 도박에 빠져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해 준다고도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공휼히 여기다 해서 자금을 대주거나 동업을 한다면, 하

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도운 사람들이 그랬지요(욥 1장).

용서나 책망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구제 역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만일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구제한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구제받은 물질을 범죄에 이용한다면 어찌 참된 구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저는 불의를 행하여 연단 중에 있거나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구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살릴 길을 찾으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해 믿음과 사랑, 구제로 공휼의 씨를 심은 것을 기억하여 제게 축복으로 갚아 주셨지요.

3. 선한 열매가 가득한 공휼의 지혜

주 안에서 공휼이 풍성히 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힙니다. 무엇보다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값진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지요. 또한 공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선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악인에게도 끝까지 선으로 행하는 것, 인내와 사랑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다 열매에 속하지요. 이러한 선한 열매들로 인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제주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휼로 무수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셨기에 그 공휼의 열매로 무수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공휼로 맺힌 선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공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마 9:13; 히 13:16). 이러한 마음을 알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으(시 37:4)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웃 타난차이 자매 (20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치앙라이만민교회에서 봉사차 개설한 '한국어 스쿨'에 참석하던 중, 저는 우연찮게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도 죄라 하시며 죄를 버리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시는 설교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2017년 5월부터 만민의 양떼가 되었지요.

2018년 3월, 저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키우시는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왼쪽 눈이 백내장 증세로 인해 거의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걷지도 못했고, 곧잘 나무에 부딪

혀 넘어지곤 했지요. 수의사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백내장이 온 것이라며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온전히 치료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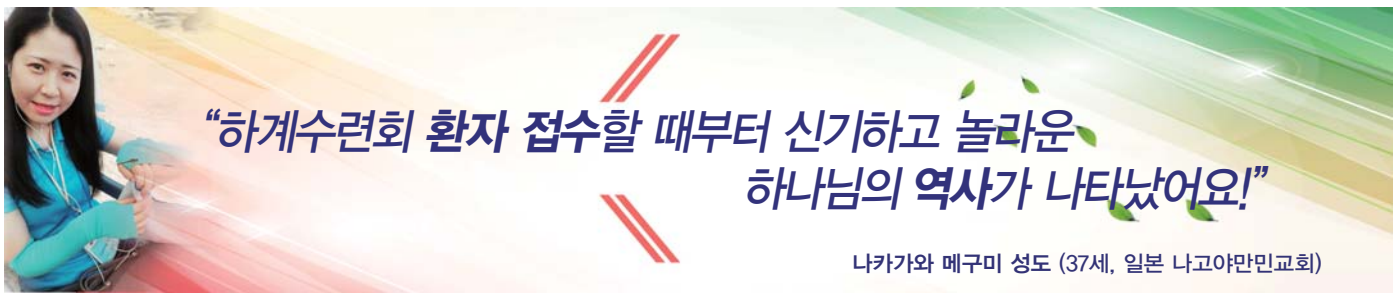
저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송아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어 부모님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송아지 위에 얹고 기도해 주었지요.

5일이 지나자 아버지께서 기쁜 소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송아지의 백내장이 깨끗이 사라져 눈동자가 달라졌고, 이제는 잘 걷고 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송아지의 백내장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계수련회 환자 접수할 때부터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카가와 메구미 성도 (37세, 일본 나고야만민교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결혼하게 되면서 남편이 크리스천이다 보니 비로소 신앙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통독하였지요. 그때 마침 어머니가 주신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 등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복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지요.

2011년에는 집에 GCN방송 안테나까지 설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나고야만민교회가 있음을 안 뒤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예배에 참석했지요.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남편은 예배 시 화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쌓아온 마음의 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지요.

그러던 시간이 흐르자 타성에 젖어 제 신앙은 미지근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5월 27일, 오한과 통증이 느껴지며 방광염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도

증세가 있어 당회장님의 기도도 치료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낫질 않았습니다. 심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야 했지요. 그 와중에 ‘2018 만민하계수련회’ 해외참석 신청마감이 6월 17일이라는 소식을 듣고 참기 신청을 마친 저는 그동안의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얼마 후, 7월 4일에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어머니 대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월 10일, 재할치로 시 어머니는 보행기를 의지해 걸으실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왼쪽 다리의 움직임이 매우 둔했고, ‘좌측공간무시’(시각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야의 좌측과 시야 내 대상의 좌측을 빠뜨리는 증상)가 심해 시야 전체에서 3분의 1도 보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7월 25일, 저는 어머니와 저의 기도제목을 만민중앙교회에 보내 하계수련회 환자접수를 하였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로 제 몸이 한결 편안해졌고, 어머니도 많이 호전되어 다음 날부터 보행기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8 만민하계수련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8월 6일 첫째 날 교육 후 환자기도를 받을 때 저의 방광염 치료는 물론 어머니의 건강도 마음에 쏘였지요. 그 뒤 저는 방광염이 완전히 치료되어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도 전혀 없었고 잠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계신 어머니도 첫날 환자기도 시간부터 몸이 회복되고 좌측공간무시도 많이 개선되어 이전에는 반만 보이던 디지털시계에 쓰인 숫자도 온전히 보실 수 있다고 간증해 주셔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저희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파스 붙인 것처럼 시원하더니 오십견이 치료되었습니다!”

김태오 집사 (57세, 3세대 31교구)

올해 3월부터 왼쪽 어깨에 한기가 돌며 통증이 느껴져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며 견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립과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4월 초,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통증을 완화해 보려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으며, 그 뒤로 수개월 동안 물리치료도 받아 보았지요. 조금 호전되는 듯했으나 통증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왼팔을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일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약을 모두 버리고 물리치료도 중단하였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찾아 회개하였지요. ‘나도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를 받아 영광 돌려야겠다’는 간절함으로 7월 9일부터 끼니 금식을 하며 다니엘철야기도회에 임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을 찾던 중, 전도가 떠올라 ‘만민뉴스’를 이웃에 전하며 다가오는 ‘2018 만민하계수련회’에 응답하고자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지요. 마침 수련회 준비를 위해 선발 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미리 가서 체육대회 준비 등 여러 가지로 봉사하니 마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8월 6일 수련회 첫날 교육 시,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전체 환자기도를 해 주실 때 믿음으로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 순간 왼쪽 어깨에 파스를 붙인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왼팔을 앞뒤로 돌려 보고 젖혀 봤더니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십견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스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B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41861-7000, 010-3030-7025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광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반월로 34 ☎04186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림로 559번길 38-33 ☎029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내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구미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9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1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05426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66-477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205, 633-6283, 010-5434-38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1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1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합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매면 해매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무안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3 ☎051805-383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집동길 24 ☎0418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9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산만민교회 경기도 안산시 관동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9번길 25-4 ☎033835-1717, 010-72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점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36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정길 323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주미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진주시 사천동 선영길 17, 2층 3호 ☎053852-5818, 010-9198-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대로189번길 28 ☎051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6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림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71,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관동면 남해안대로 861 ☎053949-9107, 010-7224-9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안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평야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 지하 ☎02489-3786, 010-2201-0542
- 겸단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양정로 162 ☎010-322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 5층 ☎0316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2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면 인현빌 26,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안대로 22, 안남빌 2층 ☎031485-9143, 010-638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0, 백세빌 10층 ☎032412-0889, 010-8927-2073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0, 아현/D ☎031905-2419, 010-2352-8336